

# 광주·전남 시내면세점 이번엔 성사될까

### 두차례 무산... 관세청, 6곳 3차 신청 접수 수익성 보장 안돼 희망기업 찾기 힘들어

관세청이 지난해에 이어 광주와 전남 등 광역 지자체에 시내면세점 특허 신청을 접수한다고 공고한 가운데 올해 광주·전남지역에 시내면세점이 입점할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지난해 공고 당시 시내면세점 희망 기업이 서류를 접수했으나 관세청 심사과정에서 탈락하거나 선정된 기업이 포기해 시내 면세점 설치는 요원한 게 현실이다.

관세청은 25일 오는 11월25일까지 광주, 전남, 전북, 인천, 경북, 강원 등 6개 지역 시내면세점 특허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대기업 중심의 면세점 산업구조를 개선하고자 중소기업기법 및 산업발전법상 중소·중견기업으로 제한했다. 희망 기업은 특허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건물등기부 등

본 등 서류를 갖춰 사업지 담당 세관에 신청서를 내면 된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서울, 부산, 제주를 제외한 13개 광역 지역을 대상으로 시내면세점 특허 신청을 공고해 울산, 수원, 창원, 대전, 대구, 광주, 천안 등 7곳에서는 중소·중견지역 신규 사업자를 이미 선정했다.

광주시 등에 따르면 광주에선 지난해 K사와 M사가 각각 신청서를 접수했으나 서류심사에서 탈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에선 로케트전자가 신규 특허를 사전 승인받았지만 지난 2월

수익성을 이유로 포기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광주와 전남지역은 잇단 국제행사 등을 앞두고 관광객 유치를 위해 시내면세점 입점이 절실한 형편이지만 현재 면세점 유치를 희망하는 기업은 찾기 힘든 것으로 알려졌다. 시내면세점은 초기 투자비가 100억~400억원이 투입되는 데다 신청 자격이 중견·중소기업으로 한정돼 있어서 지역에서 나설만한 기업이 그리 많지 않다. 특히 면세점의 핵심인 명품브랜드가 지방 입점을 꺼리면서, 수익이 보장되지 않은 점도 기업들의 구미를 당기지 못하고 있다.

실제 경북과 인천, 강원도 지난해 사전승인을 받았지만, 기업들이 포기 의사를 밝혔다. 광주시 관계자는 "시내면세점을 신청할 만한 기업을 파악중이지만 아직까지 마땅한 기업이 없다"며 "기업 입장에선 수익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쉽게 도전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시내면세점은 외국인 관광객과 출국하는 내국인이 공항이나 항만이 아닌 도심에 있는 면세점에서 쇼핑을 한 후 출국장에서 물품을 인도받아 출국하는 제도다. /임동률기자 exian@

## 추석특수 끝... 채소·과일가격 급락

### 시금치값 한달전 4분의1 사과 가격도 절반 수준

추석을 앞두고 크게 올랐던 과일과 채소 등 주요 신선식품 가격이 급락했다. 25일 서울시농수산물공사에 따르면 가락시장에서 전날 거래된 배추 10kg의 평균 도매가(상등급)는 7295원으로 일주일전 1만1093원보다 44.3% 하락했다. 한 달 전인 1만1093원에 비해서는 47.4%, 작년동기 대비 29.7% 각각 떨어졌다. 무 18kg(상등급)가격은 1만2018원으로 일주일 전보다 17.4%, 한달전보다는 36.0% 내렸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도 19.8% 낮았다. 울여름 작황이 부진했던 시금치 4kg(상등급)은 1만2061원으로 한주일 전 3만6641원보다는 3분의 1 수준으로 크게 빠졌다. 한 달 전 가격인 4만

3690원의 4분의 1로 떨어졌다. 상추 4kg(상등급)은 1만9785원으로 한 주 전 3만846원보다 35.9% 하락했다. 열무 4kg 상등급 도매가도 5034원으로 1만172원까지 치솟았던 일주일전과 비교하면 절반으로 내려왔다. 한 달 전보다는 21.5%, 1년전보다는 30.1% 낮은 가격이다. 명절을 앞두고 몸값이 크게 뽀얗고 흉로 15kg(상등급)은 4만5309원으로, 한 달 전 8만8089원의 절반 수준이었다. 한주일 전 6만3764원보다는 29.0% 하락했다. 지난해보다는 14.5% 떨어졌다. 복숭아 백도 4.5kg(상등급)은 1만8258원으로 한 주 전 2만9686원보다 39.5% 하락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무더위가 끝난 데다 추석 수요도 사라진 만큼 당분간 신선식품 가격은 안정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합뉴스

## 골든브릿지저축은행, 이사 2명 선임

여수에 본점을 두고 있는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은행장 류창호)이 최근 유성명, 김우원씨를 사내이사로 선임했다. 유 이사는 위험관리팀장과 기업금융팀장 등을 거쳐 영업 및 관리업무를 담당해 왔으며 현재 경영개선실장으로 회사의 기획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유성명 이사 김우원 이사

김 이사는 기업여신과 금융분야에서 주로 근무했으며 기업여신 전담지점인 광주지점장으로 재직중이다. 2명의 사내이사는 평사원으로 입사, 23~24년만에 각각 이사로 승진했다. 지난 2009년 상업저축은행을 인수한 골든브릿지 금융그룹측은 "폐인수 회사의 평사원 출신이 이사로 승진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블

과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철저한 능력 위주 인사를 단행해 누구에게나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는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이 신뢰와 정직을 바탕으로 믿을 수 있는 금융기업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취임소감을 밝혔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 광주시, 전국기능경기대회 93명 참가

광주시기능경기위원회는 25일 강원도에서 30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개최되는 제48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광주시 선수단은 폴리메카닉스 직종 등 34개 직종에 93명의 선수가 출전하며 귀금속공예 직종 등 22개 직종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어 상위 입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광주시 선수단은 지난 4월 광주시 기능경기대회에서 선발된 선수들로

구성됐으며 4개월 동안 집중 강화훈련을 실시하는 등 전국대회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해 왔다. 전국대회 입상자는 오는 2015년 브라질(상파울루)에서 개최되는 제43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국가대표로 선발되는 기회가 제공되며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라 해당직종 산업기사 실기 시험이 면제된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 하반기 구직자 평균 스펙

토익 698점, 학점 3.5점

취업포털 '사람인' 분석

올 하반기 취업시장에 뛰어들어 구직자의 평균 스펙은 토익 698점, 학점 3.5점(전년 4.5점), 자격증 3개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취업포털 사람인은 지난 9~22일 홈페이지에 등록된 신입 구직자 이력서 5만 1287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25일 밝혔다.

신입 구직자 가운데 토익 점수가 있는 사람은 39.1%(2만42명)로, 평균 점수(698점)는 지난 하반기(731점)보다 33점 낮아졌다.

점수 분포는 700~799점(30.2%), 800~899점(26.6%), 600~699점(18.8%), 900점 이상(9.2%), 500~599점(9.1%), 499점 이하(5.2%)로 나타났다.

대학을 졸업한 구직자(4만 2537명)의 학점은 3.5~3.9점(42.7%)인 구직자가 가장 많았으며 3.0~3.4점(35.8%), 4.0점 이상(12.6%), 2.5~2.9점(7.5%), 2.5점 미만(1.3%)과 같은 분포를 보였다.

구직자 10명 가운데 7명(75.3%·3만8609명)은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었고, 개수는 평균 3개로 조사됐다.



### 스카프 싸게 팔아요

25일 롯데백화점 광주점 패션잡화 매장에서 환절기 보온용으로 좋은 다양한 종류와 디자인의 스카프를 선보였다. 롯데백화점은 29일까지 1층 행사장에서 '패션 스카프 박람회'를 열고, 스카프를 최대 70% 할인판매 한다. <롯데백화점 제공>

## 한국 경제규모 세계 15위... 5년째 제자리

### 중국과 격차 더 커져

지난해 한국의 경제규모가 세계 15위로 2008년 이후 5년째 제자리걸음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기간에 중국은 일본을 따돌리고서 2위 자리를 확고하게 차지했다. 2008년에는 한국의 4.9배이던 몸집을 지난해는 7.4배로 불리는 등 경제력 격차를 넓혔다.

25일 한국은행과 세계은행의 세계 발전지수 자료에 따르면 2012년 한국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1조1천295억달러로 전 세계에서 15위를 기록했다.

한국의 달러표시 명목 GDP 순위

는 2004년 11위에서 2005년 12위, 2006년 13위로 해마다 뒷걸음쳤으며 2007년에는 전년과 같은 13위에 머물고서 2008년 15위로 떨어진 뒤 답보 상태에 빠져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경제가 저성장장을 거듭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세계 경제에서 한국의 비중은 2007년 1.9%까지 올랐으나 2008년 1.5%, 2009년 1.4%로 줄고서 2010년부터는 1.6%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GDP 순위를 보면 미국(15조6848억달러)이 부동의 1위를 유지했고 2~4위권인 중국(8조3583억달러), 일본(5조5957억달러), 독일(3조

3995억달러), 프랑스(2조6128억달러)도 1년 전 순위를 지켰다.

그러나 15위권에서는 ▲영국(2조4351억달러)과 브라질(2조2526억달러)이 6위와 7위를 ▲러시아(2조147억달러)와 이탈리아(2조132억달러)가 8위와 9위를 ▲호주(1조5206억달러)와 스페인(1조3493억달러)이 12위와 13위를 각각 맞바꿨다. 인도(1조8417억달러), 캐나다(1조8214억달러), 멕시코(1조1779억달러)는 각각 10위, 11위, 14위로 2011년과 같은 자리를 지켰다. 한국이 15위에 머무른 5년간의 변화상을 보면 중국이 2008년 4조5218억달러이던 GDP를 84.8%나 늘린 점을 꼽을 수 있다. /연합뉴스



# GUNSAN HOETL

## 새만큼과 함께 GRAND OPEN!

### 베스트웨스턴 군산호텔이 달려갑니다.

**전북 최초의 특급호텔이자**

동북아시아 경제중심지로 도약하는 새만큼 산업단지의 중심에 위치한 **베스트웨스턴 군산호텔**이 여러분에게 이전에는 경험 할 수 없었던 특별한 가치를 전달합니다.

**베스트웨스턴 군산호텔** 전라북도 군산시 새만큼북로 435(오식도동) Tel. 063)469-1234 Fax. 063)469-1200 http://www.gunsanhotel.co.kr